

#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의 관점으로 본

## 茶山의 讀書法

정재상\* 정소이\*\*

### 【요약】

다산의 독서법은 18세기 조선 후기의 시대적 환경에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학자들의 독서법과 차별되는 독특한 측면이 있다. 본 논고는 지금까지 주로 실용적, 수기치인(修己治人)적, 수양(修養)의 방법으로 조명해온 다산의 독서법을 서구의 오랜 성서읽기 전통인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성심(誠心)과 신독(慎獨)을 통한 깨달음에 이르는 독서의 성격이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다산의 독서법과 렉시오 디비나에서 주목할 것은 양자 모두 실용적인 차원의 독서의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치인(治人)적 실용성을 감당하기 위해 독자의 자아성찰과 자기반성적 깨달음을 통한 자기존재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산은 독서 방법 보다 독서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성심을 중요시 하였고, 신독함으로 지극히 정성스러운 성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존재의 변화는 초월적 존재를 통한 신적 조명에 의해 새로운 깨달음에 이를 때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신독은 천에 대한 외경의 마음을 토대로 선악간의 흔들림 속에서 선으로 가게 하는 성찰을 포함하는 동시에, 홀로 있으면서 신을 섬기며 삼가고 경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독실하여 천덕(天德)에 이르는 방법이다. 렉시오 디비나는 성서를 독서, 묵상, 기도, 관상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달음을 얻어 존재의 변화에 다다른 것인데 다산의 독서법에서 성심과 신독을 통해 천덕에 이르러 신적 깨달음을 얻는 측면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산의 독서법의 특징은 렉시오 디비나의 관점으로 조명했을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주제어】 다산 정약옹, 독서법, 렉시오 디비나, 성, 신독

---

\* 서강대학교 종교학전공 박사수료

\*\* 서강대학교 종교학전공 교수

## I. 서론

조선의 지식인의 독서법에 대한 연구 중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sup>1)</sup> 다산이 가르치고 실천했던 지식체계로서의 독서법은 전통적인 유교 사유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동시에 조선후기의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창조적인 것이었다. 그는 당시 과거 급제를 통한 출세 지향적인 학문적 풍토와 그에 따라 협소해진 독서의 경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지양하는 한편, 인재들을 기르며 민생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독서관을 갖게 되었다.

다산의 독서법은 이러한 실용적 독서와 더불어 인격 성숙과 마음을 닦는 수기치인적 독서, 초서지법, 그리고 전통적인 유학의 공부의 목표인 성인을 이루는 수양적 독서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다산은 사람이 천하와 국가를 위해 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훌륭한 인격이 되도록 수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다산의 수기치인은 당시 조선의 유학자들의 수기치인 개념과는 차별화된 誠과 愼獨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이는 孝와 第같은 事親을 통한 事天에 이르는 수양 방법으로서의 독서와도 구별된다. 다산은 공부의 방법으로서 독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서의 방법 이상으로 독서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태도인 誠心을 중요시 하였다.<sup>2)</sup> 그는 또한 誠과 愼獨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대한

1) 조선 지식인의 개별 독서론을 연구한 논문은 총 43편으로, 16명이 인물들이 연구 대상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인물은 퇴계 이황이며, 그 다음으로는 다산 정약용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되어졌다. 개별 독서론에 대한 연구는 2001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는 다소 미비하지만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엄경섭 (2016), p. 15.

2) 익명의 심사위원님은 다산의 공부론과 독서론을 혼동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 그러나 공부론과 독서법을 혼용한 것은 아니며, 다만 독서론을 논하면서 폭넓은 공부론까지 다루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독서는 공부의 한 부분일 뿐이다. 다산의 독서법과 렉시오 디비나와 유사점은 독서를 통해 수양을 한다는 점이다.

외경을 지닌 독서의 태도이자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렉시오 디비나는 성서 읽기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단순히 성서의 문자적인 의미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성서를 통해 영적 자양분을 얻은 다음 기도예까지 나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독자의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의 독서법 역시 독서를 통한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늘을 아는 것(天知)과 성심과 신독은 중요한 전제인 동시에 하늘이 주는 깨달음에 다다른 요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다산의 독서법에 대한 연구는 수기치인적, 실용적 독서법을 주로 조명해왔다면, 본 논고에서는 서구의 오랜 성서 읽기 전통인 렉시오 디비나의 관점을 통해 다산의 독서가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수집 혹은 자기 수양 이상으로 誠心과 慎獨에 기초한 깨달음에 이르는 초월적 독서라는 점을 조명하고자 한다. 다산의 독서법의 이와 같은 특징은 렉시오 디비나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다산의 독서법의 독특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렉시오 디비나의 역사적, 어원적 이해

렉시오 디비나의 기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독서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들은 성경말씀 안에 하나님이 실존해 있으며,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계시가 담겨있다고 믿었다.<sup>3)</sup> 초기교회는 성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였고 따라서 성서의 구절들은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적 조명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성서의 해석은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3) 엔조 비양키는 구약성서 느헤미야 8장과 이사야 61장을 통해 ‘회당의 렉시오 디비나’를 발견한다. 엔조 비양기, 이연학 역 (2001), pp. 43-47.

찾아낼 수 있었다. 2-3세기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이러한 해석학적 전통은 르네상스 이전까지 계속되었다.<sup>4)</sup> 그러한 해석은 그 어떤 학문적인 방법론보다도 수도원 공동체 내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서학자였던 오리겐은 성서는 교회의 책이기 때문에 신앙공동체 내에서 일하는 신자들만이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요리문답을 학습하는 자신의 학생들이 수도자에 준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5)</sup> 4세기가 되자 신앙의 열정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와 세상을 떠나 사막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신앙으로 인한 박해가 없어지고 순교적 이상을 펼칠 수 없게 되자 사막에서 수도적 영성을 꽃피우기 시작했는데, 사막의 영성은 금욕적 수련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었다. 그들의 성경 해석법은 단지 성경을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 안토니인데, 그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마19:21)”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사막의 삶은 시작되었다.<sup>6)</sup> 이 역시 말씀을 읽고 반응하는 렉시오 디비나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서방 수도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베네딕트는 동방교회의 성경 해석법과 묵상법을 이어받았다. 베네딕트 규칙에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규칙서 48장은 “한가함은 영혼의 원수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정해진 시간에 육체 노동을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聖讀(렉시오 디비나)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sup>7)</sup> 중세 교회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베네딕트의 전통은 11세기의 시토회와 카르투스시오회로 이어졌는데, 특별히 12세기 카르투스시오

4) 버나드 맥킨 외, 유해룡 외 공역 (1997), pp. 47-51.

5) 버나드 맥킨 외, 유해룡 외 공역 (1997), p 32.

6) 아타나시우스, 안미란 역 (1995), p. 60.

7) Benedictus, 이형우 역주 (1991), p. 185.

회의 9대 원장인 귀고 2세는 그의 관상생활에 대해 쓴 편지를 통해 성경 말씀을 읽고(lectio), 묵상하고(meditatio), 기도하고(oratio), 관상(contemplatio)에 이르는 정형화된 렉시오 디비나를 체계화 하였다. 오늘날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귀고 2세가 체계화한 렉시오 디비나의 형태를 받아들여 다루고 있다.

라틴어인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는 영어로는 Spiritual Reading, Sacred Reading, Meditative Reading, 한국어로는 거룩한 독서, 영적 독서, 성독(聖讀)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들은 렉시오 디비나가 본래 지니고 있는 뜻을 온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렉시오 디비나를 고유명사로 사용하기도 한다. 라틴어 렉시오(lectio)는 legere란 동사의 명사형으로 ‘모으다’, ‘필요한 것을 선택하다’, ‘눈으로 모아들이다’란 뜻인데, 특히 기록된 본문을 눈으로 훑어본다는 뜻이 있다. 디비나(divina)는 “신적인, 신성한, 성령에 의한”의 의미로 독서 자체가 자연적인 차원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차원의 활동임을 드러내주고 있다. ‘렉시오’가 인간의 능동적인 활동을 함축하고 있다면, ‘디비나’는 하나님에 의한 초자연적인 활동을 의미한다.<sup>8)</sup> 즉, 렉시오 디비나를 수행하는 사람은 성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렉시오 디비나의 역사적, 어원적 의미를 볼 때, 렉시오 디비나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거나 정보를 모으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성찰과 깨달음을 얻고,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월적 독서임을 알 수 있다.

---

8) 허성준 (2003), pp. 19-21.

### Ⅲ. 다산의 독서법의 형성

다산은 실학의 집대성자로서 주자가 성리학의 바탕 위에서 관념적인 독서관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실용적인 독서법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당시 18세기의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었으며, 성리학자들의 독서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반작용에 의한 것이기도 하였다. 임형택은 다산이 실천하고 가르쳤던 지식 체계가 유학 패러다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여 개성적, 비판적, 창조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한다.<sup>9)</sup> 이러한 다산의 독서법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크게 실용적 독서와 수기치인적 독서, 수양 방법으로서의 독서법 등이 있다.

#### 1. 다산의 실용적 독서법

18세기의 조선의 실학자들이 전대의 성리학자들과는 다른 의식을 갖게 된 것은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sup>10)</sup> 첫째, 당시 양반 사대부들의 학문적 풍토는 그 방향이 과거급제를 목표로 하는 기능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현실사회의 문제나 민생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산은 당시 이러한 학문적인 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은 세상을 거느리고 온 천하를 몰아서 광대와 연극 놀음을 하게 하는 것이 科擧의 學이다. 입으로는 堯, 舜, 周, 孔의 책을 읽고 老, 佛, 回, 黃의 가르침을 배척하며, 時, 禮, 史, 傳을 논할 때에는 천연하게 冠과 儒服을 갖춘 선비이다. 그러나 평소의 실상을 살펴보면 문자나 도둑질하고 문구나 훔치며 붉은 것이나 뽑고 푸른 것이나 빼내어 잠깐 남의 눈을 현란하게 하는 것이다. … 한번 과거의 학에 빠지기만

9) 임형택 (2011), p. 29.

10) 김영 (2012), pp. 15-17.

하면 禮樂도 도외시 하고 刑政도 잡된 일이라고 하여 배우지 않는다. 이런 자들에게 牧民의 직책을 주면 실무에 어두워 문서처리를 아전들의 지시대로 따라하며 만약 중앙정부에서 재정과 재판에 관한 직무를 맡기면 허수아비처럼 앉아서 밥이나 축내며 전례만 묻는다. 만약 전선에 나가게 해서 兵權을 맡기면 군사일은 배우지 않았다고 하면서 武人을 전열에 앞세운다. 이런 자들을 천하에서 어디에 쓸 수 있겠는가?!<sup>11)</sup>

이처럼 출세 지향적인 학문적인 풍토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그의 아버지는 효성이 있는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국왕은 어진 신하라고 칭찬하며 친구들도 그를 존대하는 반면, 과거에 떨어진 사람은 그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평생 가난하게 지내게 되며 비탄과 한을 품고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 당시 현실이었다.<sup>12)</sup> 다산은 이와 같이 재주있는 인재를 버리고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過擧의 學을 버리고 세상을 구하는 글을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sup>13)</sup>

둘째,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그들의 관념적인 사상체계인 주자학에 집착했기 때문에 다른 사상과 학문들에 대해서는 폐쇄적이 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들의 독서범위가 좁아지게 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현실을 도외시하는 협소한 독서의 경향에 대해 실학자들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실학자들은 성리학자들과는 차이가 있는 독서관을 갖게 되었고 다산 역시 문제 해결형 독서관을 갖게 된 것이다.

11) 『定本 與猶堂全書 2』 (2016), pp. 301-302.

12) 다산의 제자 중 이청이 이와 같은 경우이다. 그는 다산 학단에서 학문적으로 크게 인정받은 인물이었으나, 70세까지 과거에 응시하다 좌절하자 우물에 뛰어들어 자결함으로써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정민 (2011), pp. 117-163.

13) 『定本 與猶堂全書 4』 (2016), pp. 245-248.

## 2. 수기치인적, 수양 방법으로서의 독서법

다산의 독서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을 닦고 남을 다스린다는 修己治人을 위한 독서관이다. 그런데 다산의 수기치인적 독서는 기존의 유학자들의 수기치인과는 차별화된 것이었다. 김영은 다산 이전의 조선조 유학자들에게도 수기치인의 독서관이 있었지만 그 내용상 수기치인의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즉, 조선조 유학자들은 수기치인의 개념을 存心은 出治之心이라고 하면서 통치자의 주관주의적 수신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피치자의 교화로 이해하는데 반해, 다산은 현실의 주체적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경전을 재해석한 결과 修己治人의 개념을 실천적인 방향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산은 독서의 목적을 자신의 삶의 문제와 역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修己에서 慎獨을 강조하고 실천하였다.<sup>14)</sup>

유학 전통은 공부의 목표를 성인을 이루는 것을 지향해왔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획득하여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수양과 더불어 윤리와 도덕같은 올바른 삶의 자세를 통해 다다를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장태는 다산의 독서를 수양의 방법으로 다루며, 독서론보다는 공부론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그는 다산의 독서론의 기초가 孝, 弟의 도덕적 기초를 떠나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sup>15)</sup> 다산의 공부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과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집약되는데, 수기(修己)·치인(治人)의 본말(本末)구조에 대한 인식과 行에 근본하는 지행겸진(知行兼進)의 방법, 그리고 사친(事親)·사천(事天)의 실천을 통한 성성(成聖)의 실현이 그것이다. 즉, 다산은 군자의 학문은 자신을 닦는 것이 그 반이고, 나머지 반은 백성을

14) 김영 (2012), p. 20.

15) 『定本 與猶堂全書 4』 (2016), pp. 25-27.



다스리는 것으로 보며, 양자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는 본말 구조로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역설한다. 또한 그의 공부 방법은 경전의 고증에서 과학 기술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이론적 지식이라도 결코 현실 사회에서 구현하는 실천적 행위와 분리시키지 않는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sup>16)</sup> 그런데 이 중에서 다산의 공부론이 지닌 근본 과제요 이상은 事親과 事天을 통한 聖性的 실현이다. 그는 하늘을 섬기는 일(事天)을 아버이를 섬기는 일(事親)에서 출발한 완성단계로 제시하였다. 곧 효제와 사친을 통해 사천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다산은 하늘이 인간의 선악을 살피는 방법은 언제나 인륜에 있으니 인륜을 잘 실현하면 바로 하늘을 섬길 수 있다고 하였다.<sup>17)</sup>

그러므로 다산의 독서법은 그 기본 구조를 볼 때, 먼저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학문함에 있어 먼저 세워야 하는 뜻은 효제요 사친이다. 이러한 인륜을 바탕으로 비로소 독서가 가능하며 하늘을 섬기는데서 마치게 되는 것이다.

#### IV. 다산의 誠心과 慎獨의 독서법과 렉시오 디비나 비교

##### 1. 다산의 誠心과 慎獨의 독서법과 렉시오 디비나의 공통점과 차이점

독서의 목적에 있어 다산의 독서법과 렉시오 디비나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렉시오 디비나의 목적은 성서를 읽음으로서 단순히 표면적, 문자적 의미를 알려고 하기 보다는 그보다 더 깊은 영적 자양분을 얻고, 신앙을 굳세게 함으로 기도의 상태로 넘어간 다음 마침내 하나님과의 일치를

16) 금장태 (2001), pp. 14-17.

17) 『定本 與猶堂全書 6』, p. 253.

통해 영적인 변모의 신비를 체험하고 하는 것이다.<sup>18)</sup> 다산의 독서법과 렉시오 디비나 모두 독자의 자기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 다산의 독서법은 修己 이후에 치인까지 나아간다. 김용은 다산의 문제의식이 경제치용에 머물지 않고 ‘만물을 번성하게 자라나야 하겠다(育萬物)’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점을 강조한다.<sup>19)</sup>

그러면 렉시오 디비나에는 단지 修己차원의 독서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중세의 전통에 있어서 렉시오 디비나의 단계는 네 단계로만 제기되지 않았다. 강치원은 빅토르 휴의 렉시오 디비나의 다섯 단계인 독서(lectio) - 묵상(meditatio) - 기도(oratio) - 행동(operatio) - 관상(contemplatio)과 귀고2세의 구조를 비교하면서 휴는 전통적인 네 단계의 렉시오 디비나에 operatio(행동)을 첨가하여 렉시오 디비나를 말씀의 감미로움을 맛보는 관상이 지적, 사변적 차원을 넘어 윤리적 생활까지 포함하도록 했다고 보는 반면, 귀고 2세는 operatio를 영성훈련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sup>20)</sup> 이에 대해 오방식은 그와 같은 차이는 귀고2세가 은수자로 수도생활을 하는 카르투시오 수도자로서 동료 수도자들에게 영적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반면, 빅토르 휴는 수도자이지만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특별히 학문과 사역에 헌신하는 수사신부(Cannon Regular)였으므로 서로 매우 다른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며, 귀고2세가 행위나 실천의 차원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밝혀준다.<sup>21)</sup>

렉시오 디비나를 수행하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한 자신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속해있는 모든 신앙인들은 영성훈련인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먼저 자신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는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잠재적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산의

18) 허성준 (2003), pp. 104-106.

19) 김영 (2012), p. 20.

20) 강치원 (2004), p. 24.

21) 오방식 (2013), p. 180.

수기치인을 목표로 하는 독서법과 렉시오 디비나는 그 목적에 있어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렉시오 디비나는 기본 구조상 성서를 읽고, 묵상하며 자신을 성찰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기도의 단계를 거쳐 관상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다. 렉시오 디비나를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의 단계로 체계화한 귀고 2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독서는 묵상에 사용할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묵상은 찾아야 할 바를 더 주의 깊게 숙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묵상은 그것을 발견하고 보이는 사물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물을 꺼내는 것은 묵상의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묵상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합니다. 기도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을 하나님께로 들어올리며, 그것이 갈망하는 보물, 즉 관상의 감미로움을 청합니다. 그 보물이 주어질 때 관상은 다른 세 가지의 노고에 보답합니다. ... 독서는 외적 감각의 훈련이며, 묵상은 내적 이해와 관계되고, 기도는 갈망에 관련되며, 그리고 관상은 이 모든 단계를 능가합니다.<sup>22)</sup>

렉시오 디비나에서 기도의 단계가 강조되는 반면 다산의 독서법에서는 기도의 측면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sup>23)</sup> 그런 면에서 렉시오 디비나는 다산의 독서법에 비해 초자연적인 측면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그러나 다산의 독서법에서 기도의 측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초월적 측면이 부재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다산의 독서법을 렉시오 디비나의

22) Guigo II (1979), p. 210.

23) 다산에 의하면 “신독은 天에 대한 외경의 마음을 토대로 선악의 흔들림 속에서 선으로 가는 성찰을 포함하는 동시에 홀로 있으면서 神을 섬기며 삼가고 경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독실하여 天德에 이르는 방법이다”라고 하였다(각주 25 참고). 신독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독실하여 천덕에 이르는’은 독서나 묵상 보다는 기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귀고 2세가 렉시오 디비나에서 ‘기도가 열정적일 때 관상에 이른다’는 표현과도 유사하다.

24) 다산과 천주교에 관한 서적과 논문으로는 최석우, 「정다산의 서학사상」과 「한국 교회사의 탐구Ⅱ」, 최석우 저, (한국교회시연구소)가 있다.

각 단계와 대조해 보자면 다산의 독서법은 독서, 묵상에서 기도를 거치지 않고 관상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귀고 2세는 렉시오 디비나에 있어 기도 없이 관상에 다다른 것은 거의 없다고 강조 하면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자애는 인간의 한계를 능가한다는 말을 덧붙이며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sup>25)</sup> 오방식은 렉시오 디비나의 네 단계가 고정적이고 기계적인 순서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경험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 즉, 렉시오 디비나를 실천할 때 독서에서 묵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도나 관상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는 묵상에서 기도를 거치지 않고 관상의 경험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26)</sup>

다산의 독서법과 렉시오 디비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양자 모두 실용적 차원의 독서의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治人적 실용성을 감당하기 위해 자아성찰과 자기반성적 깨달음을 통한 자기존재의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김영에 의하면, 다산은 사람이 천하와 국가를 위해 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훌륭한 인격이 되도록 수양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기치인의 요체인 경전을 자주 읽으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준비 작업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그런데 존재의 변화에 다다른 독서의 방법이란, 초월적 존재를 통한 신적 조명에 의해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용적, 수기치인적, 수양의 방법으로서 조명해 온 다산의 독서법을 서구의 오랜 성서읽기 전통인 렉시오 디비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誠心과 慎獨을 통한 깨달음에 이르는 독서의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발견은 다산의 독서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5) Guigo II (1979), p. 213.

26) 임창복 외 (2006), p. 192.

27) 김영 (2012), pp. 24-25.

## 2. 다산의 誠心과 慎獨의 독서법과 렉시오 디비나의 지향점

다산은 공부의 방법으로서 독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독서법에서는 체계적 순서보다는 독서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태도요, 마음가짐으로서의 誠心이 중시되고 있다.<sup>28)</sup> 렉시오 디비나는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수도원적 렉시오 디비나와 학구적인 렉시오 디비나 방법이 있고, 교회사적으로 각 단계의 수행 순서 또한 다양하게 변천해왔다.<sup>29)</sup> 이는 렉시오 디비나의 목적에 방법이 귀속되어 왔음을 시사해준다. 그런 면에서 렉시오 디비나는 독서의 그 어떤 방법이나 순서보다 성심을 중시하는 다산의 공부방법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의 목적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그 구체적 성격을 관찰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2세기 이후 스콜라 학문의 등장과 더불어 귀고2세에 의해 네 단계로 체계화된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다산의 독서법과 비교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귀고 2세의 네 단계로 제시된 렉시오 디비나는 이후 렉시오 디비나를 이해하는 표준적인 이해의 틀이 되었기 때문이다.<sup>30)</sup>

다산은 『대학』과 『중용』을 연계시켜 에서 誠을 논하고 있는데, 두 경전의 핵심을 誠에서 찾고 있다. 그는 대학 誠意를 해석하면서 慎獨과 동일시 하는데, 중용의 핵심은 성이고, 궁극적 목적은 知天이며, 지천에 이르는 방법을 신독이라고 보았다. 즉, 다산에게 있어 성은 곧 신독이며, 신독은 天에 대한 외경(畏敬)의 마음을 토대로 선악의 혼들림 속에서 선으로 가게 하는 성찰을 포함하는 동시에 홀로 있으면서 神을 섬기며 삼가고 경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독실하여 天德에 이르는 방법이다.<sup>31)</sup> 즉, 그에게 誠은 天道이자, 人道인데, 인간의

28) 정약용 외 (1976), p. 35.

29) 강치원 (2004), pp. 22-25.

30) 오방식 (2013), p. 181.

31) 『定本 與猶堂全書 6』 (2016), pp. 315-321.

길로서 誠은 신독을 통하여 천도에 이르게 된다.<sup>32)</sup>

렉시오 디비나의 네 단계인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은 각 단계마다 의미가 있으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마지막 관상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렉시오 디비나를 수행하는 사람은 독서와 묵상과 기도를 거쳐 관상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단계에 다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과 신독을 통해 천덕에 이르는 다산의 독서법과 렉시오 디비나는 전체적인 흐름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3. 렉시오 디비나의 네 단계로 본 다산의 誠心과 慎獨의 독서법

#### (1) 독서(Lectio)

렉시오 디비나의 첫 번째 단계는 독서이다. 귀고 2세는 독서의 역할에 대하여 “정신을 집중하여 성서를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귀고 2세는 독서를 설명하기 위하여 관찰, 조사, 고찰을 의미하는 라틴어 ‘inspectio’를 사용한다. 즉, 독서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본문의 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읽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sup>33)</sup> 엔조 비양키는 독서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일 대 일로 말씀을 건네고 싶어 하시는 말씀으로 인지하고, 성서를 주의 깊게, 천천히, 여러번 읽을 것을 강조한다.<sup>34)</sup> 다산 역시 독서의 방법에 있어 단지 책을 무분별하게 많이 읽는 濫讀보다는 깊이 읽고 세밀하게 읽는 精讀을 선호했다. 특히 글자의 뜻을 꼼꼼하게 따지고 자구의 의미를 고증할 것을 강조하였다.

32) 장승희 (2012), pp. 85-92.

33) 오방식 (2013), p. 170.

34) 엔조 비양키, 이연학 역 (2001), p. 106.

독서하는 방법은 반드시 먼저 誥訓을 밝혀야 한다. 고힌이라는 것은 글자의 뜻이다. 글자의 뜻이 통한 후에 구절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구절의 뜻이 통한 후에 문장을 분석할 수 있고 문장의 뜻이 통한 후에 그 편의 대의가 나타난다.<sup>35)</sup>

또한 다산은 퇴계가 젊은 율곡 이이에게 답한 편지를 읽고 그 가운데서 한 구절을 초록한 뒤 자신의 생각을 적은 『도산사숙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대뜸 다른 의견을 만들어내지 말고, 또한 대뜸 지나간 일로 여기지도 말고, 모름지기 자세히 연구하여, 말하는 이의 본지(本旨)를 알고자 힘쓰고 반복하여 증험(證驗)하여야 할 것이다.”<sup>36)</sup>

즉, 다산은 선유의 학설 가운데 문제점을 찾아내어 새로운 의견을 도출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큰 병통으로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옛것을 이미 지나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것 역시 경계하였으며, 여러번 읽고 궁구하며 본 뜻을 체득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산의 독서법은 허심(虛心)을 강조한 이전의 전통적인 독서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다산의 허심은 성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한 것이었다.<sup>37)</sup>

렉시오 디비나의 독서 역시 전에 보아 이미 알고 있는 성서의 구절이라고 해도 구태의연하게 읽지 않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쉽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읽기 또한 아니다. 성서를 주의 깊게 여러번 반복하여 읽는 가운데 성서가 독자에게 말씀하는 바를 듣기 위한 읽기이다.<sup>38)</sup>

35) 『定本 與猶堂全書 6』(2016), pp. 275-278.

36) 『定本 與猶堂全書 4』(2016), pp. 306-323.

37) 엄경섭 (2016), p. 21.

38) 렉시오 디비나에 임하는 독자는 독서(lectio)의 단계에서 성서를 반복하여 읽는 가운데 독자 자신의 주관적인 상태와 관련된 말씀의 의미와 마주치게 된다. 정재상 (2016), pp. 22-23.

## (2) 묵상(Meditatio)

렉시오 디비나의 두 번째 단계는 묵상이다. 귀고 2세는 묵상과 독서와 차이를 두면서 독서가 성서 본문의 외부에 머물러 관찰하고 조사하는 것이라면, 묵상은 내부로 들어가서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여 각각의 요점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활동으로 본다.<sup>39)</sup> 수도원 전통의 고대 수도승들에게 묵상은 말씀을 기억하여 반복하는 되새김의 수행을 한 반면, 귀고 2세의 묵상은 이성의 도움에 의한 정신의 활동이자 숙고하는 행위이다. 다산의 독서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옳은 이치(義理)를 찾고자 해서이다. 만약 옳은 이치를 얻는 것이 없다면 비록 하루에 천권을 읽어낸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담장을 향하고 있는 것과 같을 뿐이다. 비록 그러나 글자의 뜻에 밝지 못하면 옳은 이치도 따라서 어두워진다. 혹 동쪽을 해석하면서 서쪽이라 하면 옳은 이치에서 어긋나게 되니, 이런 까닭으로 옛 선비들이 경서를 해석할 적에 대부분 글자의 뜻을 밝히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던 것이다.<sup>40)</sup>

다산은 독서를 수행함에 있어 義理를 찾기 위한 독서를 해야 할 것과 경서 해석에 있어서는 글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글을 읽는데는 모두 방법이 있다. 대체로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은 구름 가듯 물 흐르듯 그것을 읽어도 되지만, 만약 백성이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문단마다 이해하고 구절마다 찾아 연구해 가면서 그것을 읽어야 하니, 대낮에 줄음을 막는 방패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sup>41)</sup>

39) Guigo II (1979), p. 198.

40) 『定本 與猶堂全書 3』(2016), pp. 30-31.

41) 『定本 與猶堂全書 3』(2016), pp. 159-161.



다산은 책을 읽을 때는 단락마다 이해하고 구절마다 깊이 따져 읽고, 정독을 통해 그 내용의 의미를 근본부터 파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산에게 있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초록하고 의미가 있는 대목은 자신의 생각을 메모하면서 지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었다.

M. 로버트 멀홀랜드는 독서를 정보 습득적 독서와 영성 형성적 독서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정보 습득적 독서는 첫째,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많은 양을 읽어야 한다. 둘째, 직선적이다. 즉, 독서행위는 책의 여러 부분을 통과하는 이동 과정에 불과하다. 셋째, 독자의 해석을 다른 모든 해석으로부터 방어하며 본문을 독자의 지배하에 둔다. 넷째, 책은 독자 자신의 의도와 소원에 따라 통제하고 조정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독자는 책의 본문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다. 다섯째, 분석적, 비판적, 판단적이다. 여섯째, 문제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보 습득적 독서 방식은 거짓 자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반면 영성 형성적 독서 방법은 첫째, 독서의 양이 아닌 질에 관심을 둔다. 둘째, 정보 습득적 독서가 직선적인데 반하여, 영성 형성적 독서는 책의 본문의 보다 깊고 복합적인 의미에 독자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허락한다. 셋째, 독자가 책의 본문을 지배하기 보다는 본문이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넷째, 책의 본문이 독자의 통찰과 목적에 따라 지배하고 조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독서의 주체가 된다. 다섯째, 정보 습득적 방식이 분석적, 비판적, 판단적인데 반하여, 영성 형성적 독서는 겸손하고, 초연하고 수용적이다. 여섯째, 신비에 대한 개방성을 지닌다.<sup>42)</sup>

이와 같은 영성 형성적 독서 방법은 다산의 퇴계와 율곡의 理發氣發辨에도 볼 수 있다.

“나는 일찍이 두 분의 글을 취하여 읽으면서 면밀히 그 견해(見解)가 갈리게 된 이유를 찾아보았다. 곧 두 분이 말한 '이(理)'다, '기(氣)'다 한 것은, 그 글자는 비록 같으나 가리키는 것은 전적인(專) 것과 총괄하

42) M. 로버트 멀홀랜드, 최대형 역 (1974), pp. 66-77.

여 말한 것이 있으니, 곧 퇴계는 퇴계대로 하나의 리기(理氣)를 논하였고, 율곡은 율곡대로 하나의 리기를 논한 것이지 율곡이 퇴계의 리기를 취하여 어지럽힌 것은 아니다.”<sup>43)</sup>

다산은 퇴계와 율곡이 理와 氣에 대한 같은 글을 읽었으나, 각각의 고유한 관점에서의 논의를 하였다고 해석한다.<sup>44)</sup>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사람이 본문의 깊고 복잡한 의미가 독자인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개방성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렉시오 디비나의 묵상과 다산의 독서법은 정보 습득적 독서이기 보다는 영성 형성적 독서에 가깝다. 독서의 양보다는 질에 관심하며,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한 독자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 (3) 기도(Oratio), 관상(Contemplatio)

렉시오 디비나의 세 번째 단계는 기도이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관상이다. 독서와 묵상의 단계와 달리 기도와 관상을 함께 언급하는 이유는 렉시오 디비나의 네 단계가 모두 상호 긴밀한 상관성이 있으나, 귀고 2세에 의하면 독자가 셋째 단계인 기도에 열정적으로 임할 때에야 비로소 네 번째 관상의

43) 『定本 與猶堂全書 2』(2016), pp. 357-358.

44) 퇴계는 오로지 사람의 마음에 입각하여 환하게 밝혀 놓은 것이니, 그가 말한 '리(理)'는 바로 '본연지성(本然之性)'이며, '도심(道心)'이며, '천리지공(天理之公)'이요, 그가 말한 '기(氣)'는 바로 '기질지성(氣質之性)'이며, '인심(人心)'이며, '인욕지사(人慾之私)'이다. 따라서 사단과 칠정이 발(發)하는 데 있어서는 공사(公私)의 나뉘어 있어 사단은 이발(理發)이 되고 칠정은 기발(氣發)이 된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율곡은 태극(太極)이래의 리기(理氣)를 총괄하여 공론한 것이니, 천하의 모든 사물은 발하기 전에는 리(理)가 비록 먼저 있다고 하더라도, 바야흐로 그것이 발하게 되면 기가 반드시 그것에 앞서게 된다. 비록 사단 칠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다른 사물과 함께 취하여 예를 든 것이니, 사칠(四七)이 모두 기발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 그가 말한 리(理)는 바로 형이상자로 만물의 근본 법칙(物之本則)이고, 그가 말한 기(氣)는 바로 형이하자로 만물의 형질[物之形質]임을 말한 것이지, 의도를 가지고 절절이 심·성·정(心·性·情)에 대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

높은 단계에 다다를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sup>45)</sup> 그런데 렉시오 디비나에 있어 기도는 선행 단계인 독서와 묵상과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귀고 2세는 렉시오 디비나의 네 단계가 각각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깊은 연관성이 있는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독서는 묵상에 사용할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묵상은 찾아야 할 바를 더 주의 깊게 숙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묵상은 그것을 발견하고 보이는 보물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물을 꺼내는 것은 묵상의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묵상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합니다. 기도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을 하나님께로 들어올리며, 그것이 갈망하는 보물, 즉 관상의 감미로움을 청합니다. 그 보물이 주어질 때 관상은 다른 세 가지 노고에 보답합니다. … 묵상 없는 독서는 메마르며, 독서 없는 묵상은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묵상 없는 기도는 냉담하고, 기도 없는 묵상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도가 열정적일 때 관상에 이르는 것이지, 기도 없이 관상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그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sup>46)</sup>

렉시오 디비나의 관점에서 볼 때, 다산이 말하는 성심은 렉시오 디비나에서의 기도와 관상 뿐만 아니라 독서와 묵상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성격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산은 우선 독서에 있어 誠心을 중요시 하는데, 성심은 단지 성심에서 그치지 않는다.

하늘을 아는 것이 修身의 근본이 되는 것은 하늘을 안 뒤에야 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誠意를 수신의 근본으로 삼고 있고 『중용』은 지천을 수신의 근본으로 삼았으니, 그 뜻은 마찬가지로이다. 경문에서 “은미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 “은미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안다”고 했으니, 곧 하늘을 아는 것이다. 하늘을 아는 사람은 慎獨하고, 신독하면 곧 誠하게 된다.<sup>47)</sup>

45) 허성준 (2011), p. 122.

46) Guigo II (1979), p. 210, p. 213. 칼 아리코는 렉시오 디비나의 네 단계가 하나의 연속적인 움직임이며 하나님과의 4스텝 춤이라고 한다. 엄무광 (2006), p. 21.

다산은 경전을 연구할 때 성심을 다할 것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독서에 있어 성심을 다해야 비로소 배우고, 묻고, 생각하는 견해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심이라는 것은 허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여, 허위가 없을 때 비로소 신독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산에게 있어서 誠心은 慎獨이 되며, 신독하면 誠하게 된다. 이는 마치 렉시오 디비나에서 독서와 묵상 이후에 기도가 열정적일 때 관상에 이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공부의 성과는 성심(誠心)으로 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 것으로서 조금이라도 허위가 있으면 성심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경전을 연구할 때 오직 옳은 것만 찾고, 옳은 것만 따르며, 옳은 것만 지키려고 한다.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지키고자 할 때 언제나 널리 고증하고 지력을 다해 정밀히 검토하는데, 마음가짐은 티 없는 거울과 평평한 저울같이 유지하면서 송사(訟事)에 단안을 내리듯이 그 본의(本義)를 파악해낸다. 이런 과정을 거쳐 비로소 견해를 세우는 것이다.<sup>48)</sup>

백민정은 다산에게 있어 하늘을 아는 일(知天)과 신독, 성심의 공부를 유사한 함의를 가진 공부 방법으로 보면서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하늘(上帝)의 존재를 아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순서로 본다. 왜냐하면 성심과 신독의 공부가 지천(知天)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다산은 상제가 있다는 것을 앎으로 신독의 공경스러운 자세를 취할 수 있고, 신독함으로써 지극히 정성스러운 성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sup>49)</sup>

『중용(中庸)』의 “군자(君子)는 보이지 않는 바에서 경계하고 삼가하며, 들리지 않는 바에서 두려워한다”(君子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는 구절에서 다산은 ‘보이지 않는 바’를 천(天)의 실체(體)라 하고, ‘들리지 않는 바’를 천(天)의 소리(聲)라 해석하여, 초월적 천(天)존재 앞에서 인간의 삼가고

47) 『定本 與猶堂全書 6』 (2016), pp. 259-260.

48) 『定本 與猶堂全書 4』 (2016), p. 143.

49) 백민정 (2007), pp. 220-221.

두려워하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신독(慎獨)의 ‘독(獨)’을 주자가 “남들은 모르지만 자신만 홀로 아는 자리”(人所不知而已所獨知之地也)라 언급하여 남이 모르는 자리로 이해하는데 반해, 다산은 “군자가 어두운 방에서도 벌벌 떨며 감히 악(惡)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상제(上帝)가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sup>50)</sup>라고 하여, 어느 자리에서나 상제(上帝)가 내려와 감시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을 ‘독(獨)’이라 본다.<sup>51)</sup>

다산에게 있어서 신독은 至誠이 되고, 至誠은 곧 신독이 되는데, 신독은 특별히 미세한 마음이 뚜렷이 나타남을 아는데 있다. 미세한 마음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안다면 신(神)이란 여기 강림한다는 것이다. 신독은 신을 섬기고 홀로 있으며, 삼가 경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독실하여 천덕에 이르는 방법이다.<sup>52)</sup> 그것은 천(天)에 대한 외경의 마음을 토대로 선악의 흔들림 속에서 선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찰을 포함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귀고 2세는 기도의 단계는 하나님을 향해 인격의 중심인 마음을 헌신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악을 몰아내고, 선을 얻는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sup>53)</sup> 결국 신독은 至誠으로 미세한 마음이 뚜렷이 나타남을 아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에 신의 존재를 알게 되니 초월적 존재의 힘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존재에 대해 존중이 생기고 겸손해지면서 모든 것에 더욱 조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독이다.<sup>54)</sup> 신독의 결과는 미세한 마음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초월적 존재의 힘을 느끼게 되고 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다산의 독서법은 단순히 자아성찰과 자기반성적 깨달음을 통한

50) 『定本 與猶堂全書 6』 (2016), p. 234.

51) 금장태 (2001), p. 34.

52) 『定本 與猶堂全書 6』 (2016), p. 316.

53) Guigo II (1979), p. 68. “Prayer is the heart's devoted turning to God to drive away evil and obtain what is good.” 여기서 하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악(evil)이고, 하나님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선(good)이다.

54) 장승희 (2012), p. 88.

자기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독서법의 공효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성심과 신독의 독서법은 렉시오 디비나의 관상에서 경험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귀고 2세는 관상의 단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기도의 의미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은 갈망하는 영혼이 모든 것을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도중에 개입하시며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다가오십니다.”<sup>55)</sup>

성심과 신독의 독서법을 통해 신적인 존재를 경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신비신학에서 신과의 연합을 이루는 체험과도 같은 것으로 하늘을 섬기고(事天) 아버지를 섬기는(事親)을 통해 聖性を 실현하는 것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렉시오 디비나가 독서를 하되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한 자신의 변화이듯이 다산의 독서법 역시 ‘하늘을 아는 것’을 전제로 성심과 신독에 기초한 독자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는 스스로의 수양만으로 얻을 수 없는 차원의 깨달음과 시각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장승희는 다산의 성(誠) 수양의 핵심은 신독(慎獨)이며, 그것은 결국 의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의식의 변화는 서양에서 관심을 갖는 명상(관상)과 통하는 측면이 많다고 주장한다.<sup>56)</sup> 렉시오 디비나에서 관상이란, 독서, 묵상, 기도를 거쳐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sup>57)</sup> 허성준은 이러한 바라봄의 차원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그냥 보는 단계요, 둘째는 자세히 보는 단계이다. 셋째는 꿰뚫어 보는 단계로 둘째 단계보다 더 깊이 사물을 통찰하는 단계를 말한다.<sup>58)</sup> 다산은 그의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서 마치 이러한 경험을 하기라도 한 듯 다음과 같이 밝히고

55) Guigo II (1979), p. 203.

56) 장승희 (2012) p. 96.

57) 엔조 비앙키, 이연학 역 (2001), p. 109.

58) 허성준 (2011), p. 138.

있다.

처음에 용(鏞)이, 역(易)을 익히고 예(禮)를 연구하여 모든 경서(經書)에까지 미쳤는데, 한 가지를 깨달을 적마다 마치神明(神明)이 말없이 깨우쳐 줌이 있는 것과 같아서 남에게 고할 수 없는 것이 많았다. 형 전(銓)이 흑산도(黑山島)에서 귀향살이 하고 있었다. 한 편(編)이 이루어질 적마다 보이면, 형은 보고 말하였다. “네가 이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은 너도 스스로 알지 못할 것이다. 아, 도(道)가 천년 동안 없어져서 온갖 부(鄙)로 가려져 있으니, 헤쳐내고 끌어내어 그 가려진 것을 환하게 하는 것이 어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sup>59)</sup>

## V. 결론

다산의 방대한 학문적 성취와 업적을 대하노라면 누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학문적 방법론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다산의 학문적인 성향과 그에 따른 독서법은 18세기 조선 후기의 시대적인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성리학자들의 관념적이고도 현실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학풍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것으로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다산의 독서법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실용적, 수기치인적 독서법, 수양의 방법으로서의 독서법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산의 독서법은 조선조 유학자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단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자의 주관적 修身이 아닌 독자 자신의 삶의 문제를 포함한 역사와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독서에 있어 誠心과 慎獨을 중시한 다산만의 독특한 것이었다. 그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실용적, 실천적인 학문을 추구한 배경 역시 신독을 통한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59) 『定本 與猶堂全書 3』 (2016), pp. 252-281.

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에게 있어 誠은 天道이자, 人道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치인적 실용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기치인의 요체인 경전을 자주 읽으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깨달음으로 자기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다산에게 있어 그러한 독서의 방법은 기존의 실용적, 수기치인적, 수양으로서의 방법 이상의 성심과 신독을 통한 깨달음에 이르는 독서법이였다. 그는 修己에 있어 慎獨을 강조하고 실천하였다.

렉시오 디비나는 서양의 오랜 수도 전통으로 성서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여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독서이자 기도방법이다. 렉시오 디비나가 독서와 묵상, 기도와 관상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달음을 얻어 존재의 변화에 다르듯듯이 다산의 독서법 역시 성심과 신독을 통해 천덕에 이르러 신적 깨달음을 얻는 측면이 있어 양자 모두 전체적인 흐름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은 독서에 있어 성심을 강조하는데, 독서에 있어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성과는 성심으로 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고, 조금이라도 허위가 있으면 견해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성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허위가 없는 것이며, 허위가 없을 때 비로소 신독에 이를 수 있다. 렉시오 디비나의 독서와 묵상과 기도와 관상은 네 단계인 듯 하나 사실은 하나의 흐름과도 같이 밀접한 상호 연관성이 있다. 귀고 2세가 서술한 바와 같이 독서는 묵상 없이는 메마르며, 독서 없는 묵상은 오류에 빠지기 쉽고, 묵상 없는 기도는 냉담하며, 기도 없는 묵상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리고 기도가 열정적일 때 관상에 이르는 것인데, 기도 없이 관상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다산의 독서법에서 성심을 다해 허위가 없고, 허위가 없을 때 비로소 신독에 이를 수 있는 이치와 같다. 렉시오 디비나에서 기도와 관상은 독서와 묵상을 토대로 가능한 것인데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다산이 말하는 성심에는 렉시오 디비나의 독서와 묵상, 기도의 특성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귀고 2세가 렉시오 디비나의 독서의 단계가 정신을 집중하여 성서를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다산은 독서하는 방법에 있어



만드시 글자의 뜻인 고훈(話訓)을 밝혀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대뜸 다른 의견을 만들어 내거나 대뜸 지나간 일로 여기지 말고 말하는 이의 본지(本旨)를 알고자 힘쓰고 반복할 것을 강조한 부분은 렉시오 디비나의 독서에서 성서를 주의 깊게 여러 번 반복하여 읽는 가운데 성서가 독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다산은 독서에 있어 옳은 이치를 찾고자 하였고, 퇴계와 율곡의 理發氣發辨에서 본문이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렉시오 디비나에서 묵상과 같이 다산의 독서법이 정보습득적 독서가 아닌 영성형성적 독서임을 보여준다.

다산이 강조한 성심과 신독은 하늘을 아는 일(知天)을 전제로 가능하다. 다산은 상제가 있다는 것을 앎으로 신독의 공경스러운 자세를 취할 수 있고, 신독함으로써 지극히 정성스러운 성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고 때문이다. 렉시오 디비나는 독서와 묵상과 기도를 통해 관상에 이르게 되는데 관상이란,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는 동시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다산은 성심과 신독을 동일시하는데 신독은 특히 미세한 마음이 뚜렷이 나타남을 아는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초월적 존재의 힘을 느끼게 되고 그 존재에 대해 존중이 생기며 겸손해지면서 모든 것에 더욱 조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렉시오 디비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다산의 독서법은 실용적, 수기치인적, 수양적 독서법 이상의 성심과 신독을 통한 깨달음에 이르는 독서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아성찰과 자아반성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독서법이나 독서를 통해 事天과 事親을 실현하는 것 이상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렉시오 디비나에서 관상의 경험에 비교할 수 있다.

다산의 방대한 학문적인 성과는 단지 초서의 방법과 제자들의 도움뿐만이 아닌 성심과 신독의 독서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용적 독서법을 통해서만 다산을 실학의 집대성자로 볼 수밖에 없지만, 성심과 신독을 통한 깨달음의 독서법을 통해 본 다산은 실학자 이상의 종교적 인간이다. 유학 공부의 목적이 정보와 지식의

습득 이상의 수양을 통해 성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산의 성심과 신독을 통한 깨달음으로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丁若鏞 (2016), 『定本 與猶堂全書』 1-37권, 다산학술문화재단.
- 강치원 (2004), 「귀고 2세의 수도승에 나타난 Lectio Divina」, 『한국교회사학회지』, 15: 7-42.
- 금장태 (2001), 「다산 공부론의 유학사적 위치」, 『다산학』, 2: 14-17.
- 김영 (2012), 「茶山의 讀書論과 著述法」, 『韓國漢文學研究』, 50: 15-17.
- 백민정 (2007), 「정약용 수양론의 내적 일관성에 관한 연구」, 『퇴계학보』, 122: 220-221.
- 엄경섭 (2016), 「조선시대 독서론의 연구 경향과 그 전망」, 『동남어문논집』, 41: 15.
- 엄무광 (2006), 『향심기도와 함께 하는 Lectio Divina』, 서울: 가톨릭출판사.
- 오방식 (2013), 「렉시오 디비나의 발전에 미친 귀고2세의 공헌」, 『교회와 신학』, 77: 180.
- 임창복 외 (2006), 『기독교 영성교육』,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192.
- 임형택 (2011), 「전통적인 인문 개념과 정약용의 공부법」, 『다산학』, 18: 29.
- 장승희 (2012), 「다산 정약용의 성(誠) 수양과 도덕교육」, 『도덕윤리과교육』, 35: 85-92.
- 정민 (2011), 「다산 정약용의 교육사상과 공부법; 다산의 강진 강학과 제자 교학방식」, 『다산학』, 13: 117-163.
- 정재상 (2016),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를 통한 장년부 교육의 새로운 모습」, 『교육교회』, 457: 22-23.
- 허성준 (2003),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왜관: 분도출판사.
- \_\_\_\_\_ (2011),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II』, 왜관: 분도출판사.
- 버나드 맥킨 외, 유해룡 외 공역 (1997), 『기독교 영성(1): 초대부터 12세기까지』, 서울: 도서출판 은성.
- 아타나시우스, 안미란 역 (1995), 『성 안토니의 생애』, 서울: 도서출판 은성.
- 엔조 비앙키, 이연학 역 (2001),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왜관: 분도출판사.
- 정약용 외, 실시학사경학연구회 역 (1996), 『다산과 문산의 인성논쟁』, “이여흥에게 답함”(다산의 1차서신), 서울: 한길사.

Benedictus, *Regula Benedicti*, 이형우 역주 (2000), 『베네딕도 수도 규칙』, 왜관: 분도출판사.

M. 로버트 멀홀랜드, 최대형 역 (1974), 『영성 형성을 위한 거룩한 독서』, 서울: 은성출판사.

Guigo II (1979), *Ladder of Monks, A Letter on the Contemplative Life, and Twelve Meditations*, *Cistercian Studies Series 48*, Kalamazoo, MI: Cistercian Publications.

##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asan Jeong Yagyong's the method of reading and understanding Confucian Classics, by comparing with Lectio Divina (Divine Reading), which is the traditional Christian practice of scriptural reading in order to increase the knowledge of God's words.

Researchers have so far focused on Tasan's method of reading Classics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ity, utility, and effectiveness. On top of this, however, there is something very sincere, genuine, and solemn in Tasan's approach to understand the authentic meaning of Classics.

It is well known that Tasan emphasized the priority of 'sincere mind (誠心)' and importance of being 'watchful when alone (慎獨).' Sincerity and prudence are essential attitude of a scholar when reading Classics. Only when one is sincere and cautious, one could reach at the ultimate, hidden meaning of the Classics; Tasan confessed that when interpreting some points of Classics, he was guided by Heaven. It is comparable to that of Lectio Divina's four step method of reading; namely, by first reading scriptures (lectio), meditating with logic and agenda (meditatio), and sincerely and cautiously praying for the deeper understanding (oratio), one finally reaches at the point when Heaven guides the reader to the true meaning and the reader can hear the voice of Heaven.

**【Keywords】** Tasan Jeong Yagyong, Method of Reading, Lectio Divina, Sincere Mind, Watchful When Alone

논문 투고일: 2017. 9. 14

심사 완료일: 2017. 10. 17

게재 확정일: 2017. 10. 19